

EPOCHE(에포케) : 모호함을 견뎌내는 힘

“판단을 중지하고 모호한 현상에 대해
인내력을 가지고 살펴보는 힘은
21C 통찰의 시대에 리더들이 갖춰야 하는 능력임에 분명하다.”

평생 인간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연구한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A. Maslow)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고한 능력은 '모호함을 견뎌내는 힘(tolerance of ambiguity)' 이라고 정의했다. 매슬로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이룬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과 신의 경계선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같은 개념을 철학적 용어로 환원한다면 Epoche(에포케)라 할 수 있다. 에포케는 '판단중지' 라는 뜻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현상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현상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괄호()' 안에 넣어 둘 수 있는 힘이며, 이것이 성숙 되었을 때 순수 의식과 본질에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호함을 견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든 자동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야만 위안이 되고 속이 시원하다. 스스로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지 못하면 마치 컴퓨터가 버퍼링(buffering)을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의자원(attention)을 소모하고 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충분한 판단 근거가 없거나, 혹은 Fact가 없는 단순 추측만으로도 쉽게 판단을 내리며 스스로 확신을 조장하는 경로를 반복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와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판단을 중지하고 모호한 현상에 대해 인내력을 가지고 살펴보는 힘은 21C 통찰의 시대에 리더들이 갖춰야 하는 능력임에 분명하다. 부단한 현상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상황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

James Roh

